

슬금슬금 사라지는 광주 근현대건축물

市 등록문화재 지정 관리
14곳 외 보존 근거도 없어
도시재생 거점 가치 불구
개발 광풍에 대부분 허려

광주에 그나마 남아 있는 근대건축물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들 자산은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반 지어진 것으로, 구도심에 산재해 있어 도시재생의 거점으로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광주시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는 화장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이 들어섰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 옛 전남도청 본관을 등록문화재 제16호로 지정한 이후 올해 전주대 대교구정 브레다관까지 모두 14개 근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 문화재위원회가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건물주의 신청이 없는 경우 딱히 보호할 근거가 없어 보수, 철거 등을 하더라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광주시와 토지소유자 등도 건축물의 신축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근대건축물의 보존이나 활용에는 무관심해 등록문화재를 제외한 근대건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면서 문화도시 광주의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930년 12월 25일 광주~여수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동구 학동에 자리하게 된 남광주역은 2000년 철거되고 화장실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 광주시민사회가 일제에 요구해 최초로 빈민들을 위한 다가족주택을 건립해 '갱생지구'로 명명된 '학동8거리'도 2000년대 후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면서 사라졌다. 갱생지구

는 전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제의 감시체제가 가미된 골목길 형태다. 백범 김구와의 인연, 오방 최흥종 목사 등의 기여 등으로 연구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았다.

남광주역 역시 신축된 광주역과는 달리 근대 건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보존해 사용했다면 광주의 명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1923년 개교한 광주여고 건물 역시 슬러나갔다. 부족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외곽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해 192억원의 보상비와 168억원의 조성비를 들여 602면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93년된 건축물을 헐어버린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에서야 용역을 발주해 광주도시재생 거점 시설물을 조사했으나 광주여고 건물은 이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에 자리한 옛 조흥은행 건물도 최근 매각돼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 조흥은행 건물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부인 현준호씨가 호남의 지주자본과 상업자본으로 건립한 민족계 은행 호남은행과 관련이 있으며 1943년 12월 지어진 건물이다.

이 밖에에도 일제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 전후 미군정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을 제외한 근대건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면서 문화도시 광주의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도시의 역사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이들 근대건축물은 좋은 소재가 되며, 그 가치는 이미 인정받고 있다"며 "과거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해나 철저한 보존 대책 없는 문화도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DJ센터 주차면 '꿈수' ▶6면

광주 광산구·나주 땅값 강세 ▶10면

신팔도유람-예천 활축제 ▶18면



바다와 빛의 조화...여수 낭만포차의 야경 27일 오후 여수시 중앙동 낭만포차거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산물 등으로 요리된 갖가지 먹을거리와 밤바다를 수놓은 야경을 즐기며 여름밤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文정부 첫 검찰 간부 인사 고강도 인적쇄신

36명 승진·전보...22기~23기 대거 진입
44명으로 줄어든 검사장 호남출신 12명

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특히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장과 서울고검장 자리 등에 호남 출신들이 전진 배치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관련기사 7면>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내용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

사 여파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파면돼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 정기 인사다. 공석인 고검장급에는 19기 2명과 20기 3명이 임명됐다.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54·사법연수원 20기·영광·대동고) 서울북부지검장이며, 서울고검장에는 조은석(52·19기·장성·광덕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53·19기·서울·명지고) 부산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함께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50·

20기·부산·영동고)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김오수·조은석 고검장은 호남, 김호철·황철규 고검장은 서울, 박정식 부산고검장은 대구 출신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연수원 22기 3명과 23기 9명이 발탁돼 총 12명이 새로 진입했다. 일선 지검의 경우 호남출신으로는 김희재 의정부지검장(55·20기·여수·순천고)을 비롯한 이석환 광주지검장(53·21기·광주·송일고), 양부남 광

주지검장(56·22기·담양·담양공고), 윤운걸 제주지검장(51·21기·해남·영등포고)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호남출신으로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인 김우현(50·22기·여수·광주제일고) 법무부 출신국의 국민정책본부장이, 대검 형사부장에는 전북 고창출신 이성윤(55·23기·전주고) 서울고검 검사, 대검공판 송무부장에는 고희출신 송삼현(55·23기·순천고)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됐다. 이 밖에 광주고검 차장으로는 오인서(51·23기·서울)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방향에 대해 "신인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패사범 척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로 고검장·지검장 등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검사는 지난 정권의 49명에서 현재 4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중 호남출신은 12명이다.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도 1주일 이내 이뤄질 전망이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징역 석방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김상률 1년 6월·김종덕 2년 실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

의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화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Completion of SUV Line up

G-Class, GLS, GLE, GLE Coupé, GLC, GLC Coupé, GLA
메르세데스-벤츠 SUV 라인업의 완성.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와 함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해정동)/Tel.062)226-0001

장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ercedes-AMG GLC 63 S 4MATIC (배기량 1991cc, 공회전량 1440rpm, 직전단, 복합연비 9.1km/ℓ, 시내연비 12.3km/ℓ, 고속도로연비 10.8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192g/ℓ) GLC 250 4MATIC (배기량 2143cc, 공회전량 1500rpm, 직전단, 복합연비 12.0km/ℓ, 시내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11.5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151g/ℓ)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9cc, 공회전량 1500rpm, 직전단, 복합연비 11.8km/ℓ, 시내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11.5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177g/ℓ) GLC 250 4MATIC (배기량 2143cc, 공회전량 1500rpm, 직전단, 복합연비 11.1km/ℓ, 시내연비 14.9km/ℓ, 고속도로연비 11.2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172g/ℓ) GLC 300 4MATIC (배기량 2999cc, 공회전량 1500rpm, 직전단, 복합연비 11.1km/ℓ, 시내연비 14.9km/ℓ, 고속도로연비 11.2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172g/ℓ) Mercedes-AMG GLC 63 4MATIC (배기량 2999cc, 공회전량 1500rpm, 직전단, 복합연비 9.1km/ℓ, 시내연비 12.3km/ℓ, 고속도로연비 10.8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192g/ℓ)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 (배기량 2999cc, 공회전량 1500rpm, 직전단, 복합연비 11.1km/ℓ, 시내연비 14.9km/ℓ, 고속도로연비 11.2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172g/ℓ) Mercedes-AMG GLC 63 4MATIC Coupé (배기량 2999cc, 공회전량 1500rpm, 직전단, 복합연비 9.1km/ℓ, 시내연비 12.3km/ℓ, 고속도로연비 10.8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192g/ℓ) Mercedes-AMG G 63 (배기량 5461cc, 공회전량 2633rpm, 직전단, 복합연비 10.2km/ℓ, 시내연비 14.9km/ℓ, 고속도로연비 11.2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229g/ℓ) Mercedes-AMG G 63 (배기량 5461cc, 공회전량 2633rpm, 직전단, 복합연비 10.2km/ℓ, 시내연비 14.9km/ℓ, 고속도로연비 11.2km/ℓ, 동급55급, 복합002배출량 229g/ℓ)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